
17/06/18(주) 주일예배 / 제목 :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주는 교훈 (삿 3:1~6) p.363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3)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주는 교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어떤 젊은이가 인터넷에 ‘입대 전에 생각했던 군대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군대는 총을 쓰고, 외출을 타고, 낙하산에서 뛰어내리고, 북한군과 교전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에 가보니 봄에는 막사를 새 단장하고, 여름에는 침수된 길을 고치고, 가을에는 참호를 단장하고, 겨울에는 눈 치우는 일을 하다가 제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역만 하다가 제대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절대 전쟁만은 나지 않아야 한다고 한결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철없는 세대는 전쟁이 병정놀이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든든히 무장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준비를 잘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7년 전 그 날도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는 비극과 아픔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며, 아직도 그 아픔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같은 역사의 사건은 그 깊은 의미와 고귀한 교훈을 바르게 해석하고 후세에 전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6.25사변 기념예배를 통하여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과 유가족들,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후 67년이 지나는 동안에 6.25 참전 용사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그분들과 함께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의 피로써 지켜졌던 이 대한민국은 이제 6.25 전쟁을 모르는 전후세대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세대는 아직도 이 전쟁의 이유를 모릅니다. 왜 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 그 고통과 아픔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습니까?

6.25 전쟁으로 한국국군만 22만 명이 희생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UN군, 북한군, 중공군 및 남북 민간인 도합 4백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남쪽의 인사들이 85,000명이나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갔고, 전쟁미망인은 30만 명, 전쟁고아는 10만 명, 이산가족은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535명의 목사님들이 학살당했고, 2,122개의 교회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전쟁 이후 세대는 아직도 전쟁의 이유와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국정보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5.1%가 6.25전쟁을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50.7%는 조선시대에 발발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6.8%가 6.25 전쟁의 발생연도를 모르고 있으며, 38%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극 싸우겠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고, 심지어 15.5%의 학생들은 외국으로 도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대해 교훈하는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족속을 통하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본문 /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1. 주적(主敵)의식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블레셋 다섯 방백을 위시하여 가나안 본토와 그 주변 지역의 이방 민족들 중 일부를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계속 전쟁의식을 유지시키려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안이하게 살지 말고, 아직도 섬멸해야 할 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완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움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그런 뜻 깊은 연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남겨 두신 열국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평화 공존의 이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대신에 여호수아 세대의 조상들이 이미 정복해 놓은 땅에서 안주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그 결과 주변 이방 민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조차 오로지 유화 정책으로만 일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나중에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까

지 전 사사 시대를 통하여 그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줄곧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원수에 대하여 주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저 적당히 사이좋게 지내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코 평화 공존이 아니라 그 원수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전쟁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전선(休戰線/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하여 북한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야기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22시에 휴전됨으로써 생긴 군사분계선)이란 뜻은 아직도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도 여전히 우리를 주적으로 여깁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는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니 한시라도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기독교 말살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1. 주적(主敵)의식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2. 전쟁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부모 세대보다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복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대적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전투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모든 백성들이 크게 고향을 질렀더니 큰 성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성이 무너졌는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전쟁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영광과 감격과 체험을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6.25 전쟁 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에 남한 전 지역이 일주일 만에 함락될 위기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여 도움을 주었으므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국군장병들과 학도병까지 참여하여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지만 만일 이 때에 이러한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데 지금 세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1. 주적(主敵)의식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2. 전쟁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쟁은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쟁은 죄악이 그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을 보십시오. (수 23:16)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특히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왜 사사시대에 이처럼 전쟁이 많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도구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은 외세의 개입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한국 전쟁의 원인을 이 민족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민족적으로 신사참배를 하며, 우상을 숭배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 민족에게 이 같은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니 까, 기독교총회에서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해도 괜찮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공산당이라는 몽둥이로 치시고 만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우상숭배에 가담했다고 해도 그 죄의 값은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히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6.25도 기억하고, 6.25 이전에 자행 되었던 우상숭배의 잘못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의 침략과 6.25 전쟁의 비극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제 2의 6.25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나라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일한 생각에 빠져 회개는커녕,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여 얼마든지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했다는 서울대 핵물리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정권은 세균무기를 2500~5000톤이나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세균무기란, 탄저균, 페스트균, 콜레라, 장티푸스 등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말합니다. 재작년에 메르스

하나로도 나라가 재난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만일 2500톤의 세균이 남한에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한의 최신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120km에 달하기에 휴전선 인근에서 쏘 경우, 한국의 수도권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t 기준으로 볼 때 핵무기의 효과범위보다 세균 무기가 330~460배가량 넓다는 것입니다.

1996년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화학전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저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해 올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6.25 전쟁이 생생하게 보여 준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고, 성경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역사의 경고를 깨달음으로써,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핵심 : 전쟁역사의 교훈을 깨달음으로 조국을 지켜내는 사람이 다 됩시다.

요약정리 /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1. 주적(主敵)의식을 심어 주기 위함입니다.
2. 전쟁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전쟁은 최악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